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물가 인상 우려 속에 소비자 심리 지수 계속 하락
- WSJ: 3월 미 도매 물가 하락.. 에너지 및 식품 비용 하락 주도
- WSJ: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새로운 미 일자리 창출할까?

####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금융 자산, 월가 변동성에 흔들린다
- WSJ: JP 모건, “미 경제 상당한 혼란 직면”
- JP 모건 보고서: 관세 ‘해방의 날’: 고통, 혼란, 보복

####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중국도 미국에 84% 관세에서 125%로 올려 보복관세
- WSJ: 미·중 관세 전쟁, 양국 기업체와 소비자에 고통준다
- WSJ: 트럼프 팀의 70여 개국 협상은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 높아

#### [물류]

- WSJ: 트럼프 미 상선 확대 추진.. “문제는 선원이 없다”

#### [에너지]

- CNBC: 미 에너지장관 “세일 산업, 유가 하락에도 번창한다”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관세로 저가 중국산 가격 급등 전망에 중고 시장 이익 기대
- Bloomberg: 테슬라, 관세 여파로 중국에서 미국산 모델 주문 중단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Consumer Sentiment Extends Plunge as Price Expectations Soar**

##### **미 물가 인상 우려 속에 소비자 심리 지수 계속 하락**

- 관세 우려가 커지면서 미 소비자 심리지수는 50.8로 떨어져 기록상 두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 장단기 인플레이 예상치도 크게 올라 미 소비자들은 내년에 물가가 6.7%, 향후 5년에서 10년간 물가가 4.4%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이는미시간대학의 미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 발표인데, 이번 조사는 트럼프의 관세 90일 유예 조치 이전인 3월 25일부터 4월8일 사이에 조사된 것이다.

### **WSJ: Producer Prices Fell in March as Energy, Food Costs Declined** **3월 미 도매 물가 하락... 에너지 및 식품 비용 하락 주도**

- 3월 미 도매 물가가 하락했다. 식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의 하락이 이를 주도했다.
- 연방 노동부의 오늘 금요일 발표에 따르면 3월 도매 물가, 즉 생산자 물가지수는 0.4% 떨어졌다. 당초 예상치는 하락폭 0.2%였다. 작년 3월과 비교해서는 연율 2.7%이다.
- 그리고 가솔린 가격이 11%로 떨어져 상품 가격이 0.95 하락, 2023년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다른 연료비와 달걀, 쇠고기, 야채 등도 하락했다.

WSJ 기사

### **WSJ: Can Trump's Tariff Offensive Deliver New American Jobs?** **트럼프 관세 정책이 새로운 미 일자리 창출할까?**

-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수입 비용을 늘림으로써 미국에 제조업을 되돌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규모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이는 제조 비용이 늘어나고 관세가 지속된 데 따른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고 있다.
- 현재 미국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기계 자동화 때문에 미국의 생산직 일자리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WSJ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Volatility Lashes US Assets in Wall Street Unrest: Markets Wrap** **미 금융 자산, 월가 변동성에 흔들린다**

- 미중 무역 전쟁으로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고 이번주 말이 다가오면서 달러 약세에 국채 가격이 내려앉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 현재 상황이 시장과 기업체와 소비자들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 예상치는 올라가고 있으며 변동성은 수그러질 가능성이 없다.
- 나스닥은 오늘 오전 1%의 상승세가 꺾여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 둔화 우려로 달러는 지난 6개월 동안 최저치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또한 2019년 환매조건부채권 시장 위기 이래로 최악의 주를 맞이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 **WSJ: JPMorgan Warns Economy Is Facing Considerable Turbulence**

### **JP 모건, “미 경제 상당한 혼란 직면”**

- JP 모건의 CEO인 Jamie Dimon는 미 경제가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이같은 환경에서 충분한 자본과 유동성을 보유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 그와 이 은행의 이코노믹스 들은 이미 올해 하반기에 미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이는 중국에 대한 더 강화된 관세 등의 여파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 은행은 올해 첫 실적 발표를 통해 수익이 9% 상승했다고 발표했지만 글로벌 경제 둔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로 인해 자본시장에서 융자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WSJ 기사

## **JP 모건 보고서: Post-Liberation Day: Pain, Panic and Payback**

### **관세 ‘해방의 날’: 고통, 혼란, 보복**

-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구조적인 혼란의 폭이 상승했다. 관세 폭이 1968년 이래 가장 큰 규모가 되면서 관세율이 24% 상승했다.
- JP모건 글로벌 경제팀은 글로벌 침체 가능성을 60%로 본다. 미국 경제팀은 올해 미국이 경기 침체로 진입한다고 예상하고 있다.
- 트럼프는 상당히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정책 접근 방식을 취하면서 외부와의 교류는 줄이고 미국을 어느 정도 자급자족적인 경제 모드로 바꾸려고 해 우려를 키우고 있다.
- 미중 간에 협상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중국의 보복 관세 발표로 인해 보복 관세는 격화되고 있다.
- 유럽연합의 협상을 선호한다고 했지만 보복 관세와 비관세 장벽 사용을 마다하지 않을 대세다.
- 트럼프가 관세 시행 근거로 사용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법적 도전들이 제기된 상태다.
- 관세를 보다 거시적인 목표와 안보 목표와 연계시키려는 마라고협약(Mar-a-Lago Accord) 방안은 가능성이 적다.
- 트럼프 정책은 달러의 장기적인 주도권을 약화시키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
- 의회 예산 조정안을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상원 예산 조정안은 회계연도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 동안 2017 감세법(TCJA)을 연장화시키는 것 외에 15조 달러의 감세를 추가하고 있어 현재의 법 기준 대비 부채가 7조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에 대한 MAGA 지지층 기반은 약화되지 않고 있는데 그의 강공 모드는 바뀌지 않고 있다. 비주류 언론의 입장 보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J.P.Morgan 보고서

### [미 관세 여파]

#### **Bloomberg: China Caps Tariffs on US at 125%, Calls Trump Levies a 'Joke'**

##### **중국도 미국에 84% 관세에서 125%로 올려 보복관세**

- 중국은 미국산 모든 제품에 대해 관세 폭을 더 크게 올려 보복 관세를 실시하면서, 미국의 높은 관세율 부과 행동은 '숫자 놀이'에 불과하며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 관세를 84%에서 125%를 상향 조정하면서 금요일부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트럼프는 중국의 연락을 통해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중국도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있으나 협상을 종용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 중국은 "미국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미국산이 현재의 관세율 상황에서 더 이상 중국에서 판매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미 관세 조치들을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 **WSJ: The U.S. and China Are Going to Economic War—and Everyone Will Suffer**

##### **미·중 관세 전쟁, 양국 기업체와 소비자에 고통준다**

- 현재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세계 곳곳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현재 미국은 중국에 145% 관세, 중국은 미국에 1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 현재 양국의 상품 교역 규모는 5천8백20억 불인데 이 분야가 정지 상태로 들어간다. 미 공장들은 중국에 주문을 취소하고 있으며 중국 생산업체들은 직원들을 일시 휴직을 시키고 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된 후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박 예약 건수가 급락하고 있다.
- 작년 미 총 수입품 중에 13%가 중국산인 가운데 많은 미 기업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작해 고율 관세 현실에 적응하기 시작했지만, 이번 미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접근에 제한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미국인 소비자들도 24%의 가격 상승 피해를 받고 있는데 물가 상승이 더 커질 상황에 직면해 있다. 중국도 전면적인 관세 전쟁으로 가뜰이나 부동산과 소비 지출을 극복하기 위한 수출 주도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다.
- 한편, 작년에 미국의 중국 수출 규모는 1천4백35억 불, 중국은 미국에 4천3백89억 불을 수출했다.

## **WSJ: Trump Team Races to Cut Piecemeal Tariff Deals With More Than 70 Countries**

**트럼프 팀의 70여 개국 협상은 부분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 높아**

- 트럼프 행정부는 70여 개국과 임시적인 협상을 갖기 위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협상은 전통적으로 글로벌 협상을 만드는 제대로 된 협상 협약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다.
- 트럼프가 자랑하는 외국 국가들의 협상 제의는 임시적 내용인 반면에 제대로 구체화된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가 다른 국가들에 관세를 낮추고 보다 많은 미국산을 구입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정작 백악관은 관세 시행 마감일인 7월 8일까지 현재 여전히 협상 전략을 짜는 중이다. 전통적인 자유협정은 협상하는데 보통 수년이 소요된다.

### **[물류]**

## **WSJ: Trump Wants to Dominate Shipping. America Doesn't Have Enough Sailors.**

**트럼프 미 상선 확대 추진.. “문제는 선원이 없다”**

- 트럼프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 국적 유조선, 컨테이너선 등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선 운항에 필요한 미국인 선원의 절대적 부족이 핵심 장애물로 떠올랐다.
- 민간 상선이 전시에는 미 국방부 군수사령부(Sealift Command)가 상선과 선원을 동원해 필수 물자를 수송하게 되어 있어,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한 전략적 기반으로서 상선과 자국 선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선원 수급 악화 이유로는, 미국 상선 축소와 해운사의 해외 등록 전환으로 선원 직업의 매력과 안정성이 약화되었고, 이로 인해 청년층 유입이 줄고 많은 해양 아카데미 졸업생이 육상직으로 전향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다.

### **[에너지]**

## **CNBC: U.S. energy secretary says shale industry will ‘survive and thrive’ despite plunging crude prices**

**미 에너지장관 “셰일 산업, 유가 하락에도 번창한다”**

- 미 에너지장관이자 셰일사 Liberty Energy의 CEO였던 Chris Wright는 셰일(Shale)이 과거 위기에서도 혁신과 비용 절감으로 생존해 왔으며, “지속된 유가

- 하락에 투자 결정은 조정될 수 있지만, 미국 에너지 산업을 낙관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수요 둔화, 관세 불확실성, OPEC+의 공급 확대 등으로 국제유가는 최근 1년 새 약 22% 하락했다. 분석가들은 셰일 산업 생존에 필요한 기준 유가를 배럴당 65달러 이상으로 보며, 현재 서부텍사스산원유(WTI)의 5월물 선물은 60.26달러에 거래된 바 있다.
  - 라이트 장관은 “가격이 하락하면 단기 수익은 줄어들 수 있지만, 우리는 장기적 에너지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CNBC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CNNBusiness: Cheap things from China are poised to get pricey.  
Secondhand retailers are ready to take advantage**  
관세로 저가 중국산 가격 급등 전망에 중고 시장 이익 기대

- 트럼프는 5월 2일부터 중국산 소액 직구에 적용되던 \$800 이하 무관세 혜택(de minimis exemption)을 폐지하고 120% 관세 부과, 6월 1일부터는 우편물당 최대 \$200까지의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ThredUp 등 중고 의류 플랫폼은 “패스트 패션의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들이 중고품을 선택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따라 패스트패션의 의존도가 높은 미국 의류시장의 소비 패턴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패션산업협회는 이 산업이 “다른 어떤 제조업 분야보다 글로벌 공급망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면세 수입품이 전체 미 전자상거래 수입의 80%를 차지했으며, 대부분이 중국 수입품이었다. Temu, Shein, Aliexpress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23년 한 해 동안 무관세 혜택을 통해 10억 건 이상의 저가 배송물을 미국으로 배송했다.
- Shein 등 주요 중국 판매업체들은 멕시코와 베트남 등에 공장 이전을 시도하거나 미국 내 창고로 대량 선적을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소비자가 가장 큰 부담을 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CNNBusiness 기사

**Bloomberg: Tesla Stops Taking Orders in China for Models Imported From the US**  
테슬라, 관세 여파로 중국에서 미국산 모델 주문 중단

- 테슬라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델 S 세단과 X SUV에 대한 중국 내 주문을 중단했다. 이는 트럼프가 부과한 145%에 달하는 대중 관세와 중국의 보복 관세에 따른 조치로, 두 모델은 현재 기존 재고만 판매 중이다.
- 테슬라 매출의 20%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하지만, 모델 S와 X는 작년 기준 약 2,000대 판매에 불과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는 중국 시장 내 테슬라 입지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보고서]

**금값 3천200달러 첫 돌파...스위스프랑 10년만에 최고  
안전자산에서 '밀려나는' 달러, 약세 지속  
닛케이 2.96%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11일(현지시간) 한때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천200달러를 넘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 중 한때 온스당 3천220.08달러로 상승,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다.

금 현물 가격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시간 오후 3시 58분 기준 전장 대비 0.63% 오른 3천196.3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